

학술서

## 무교회주의자 内村鑑三

스즈키 노리히사 지음/김진만 옮김

일본의 독립 기독교인이자 사상가 우치무라 간조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입문서. 간조는 김교신과 함석헌 선생의 스승이자 당시로서는 드문 친한과 인사였던 것으로도 유명한 인물. 바로 그의 내면의 방황과 고뇌, 인간적 매력은 물론 예수와 조국을 동시에 섬기려 했던 한 지식인의 모순과 좌절은 어떤 것이었나를 이 한편의 작은 책을 통해 독자는 그 의문을 풀 수 있다. (677-5890)

소화/B6변형/168면/4200원

## 21세기 APEC의 비전— 과제와 전망

김용제 엮음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인 엮음이 외에 건국대 정의와 최한수 교수 등 7명이 필자로 참여한 이 책은, 동북아와 아태지역에서의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 평화와 번영이 가능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격동하는 아태지역의 정치적 군사적 변화와 세계무역체제의 대변혁에 직면한 한국의 입장을 재조명하고 대비책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75-6566)

서울프레스/A5신/188면/9000원

## 마르크스주의와 노동조합투쟁

토니 클리프 외 지음/최규진 옮김

두명의 공저자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지도적인 성원으로서 영국 노동운동에 대한 실천적 개입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쓴 책으로, 노동조합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남아공에서는 베스트셀러로 성가를 높이고 있을 정도라고. 특히 이 책에서 중요한 사례로 꼽는 것은, 1920년대 영국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조합 운동과 관련하여 추구한 전략 전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49-9908)

풀무질/A5신/154면/5500원

## 중국서예 80제

양진방 외 지음/곽어봉 옮김

은나라의 갑골문과 금문의 의의에서부터 청나라 강유의의 <광예주쌍죽>까지 서체에 대한 정의와 그 특징, 시대별 주요 작가들에 관한 고찰 등은 물론 서예의 학습대상인 법

첩과 기본적 서법 용어를 살피고 있다. 또한 인장의 명칭과 종류, 유명작가와 인장의 풍격, 도법과 장법 등을 아울러 서예의 입문서로서 모자람이 없는 책. 옮긴이는 외국어대학 강사. (733-4901)

동문선/A5신/392면/12,000원

## 종교철학의 체계적 이해

J. 헤센 지음/허재운 옮김

종교철학을 독일철학의 입장 즉 현상학적 입장과 가치 철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책으로 기존의 영미철학의 입장인 자연주의적 실증주의적 실용주의적 경향과 변별된다. 제1부에서는 종교가 철학 도덕 예술 등의 분야와 어떤 차이점과 연관성을 지니는가를 밝히고, 2부에서는 종교의 본질을 본격적으로 다루었으며, 3부에서는 종교의 진리성 문제를, 4부에서는 종교의 유형을 점검한다. (924-6161)

서광사/A5신/512면/20000원

소설

## 내가 광주를 쏘았다

한상원 지음

광주항쟁 당시 보안사 부대원이었던 필자가 군인이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가해자가 되어야 했던 비참한 심경을 소설에 담아낸 것. 피해자의 입장이 아닌 가해자의 시각에서 우리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광주항쟁의 단면을 그려낸 이 소설에서 작가는, 당시 진압군으로 투입된 가해자들 역시 또다른 피해자라고 역설한다. (923-7907)

모아/A5신/230면/5500원

## 여인의 새벽 (전5권)

정형남 지음

'95 교보 대산 창작지원금 선정작가의 장편소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에서 작가는, 구수한 문체로 성과 사랑 그리고 진솔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작가는 창작집 <수평인간>과 장편 <높은 곳 낮은 사람들> <만남 그 열정의 빛깔> <해인을 찾아서> 등을 펴낸 바 있다. (488-2923)

남도/A5신/각 348면 내외/각 6500원

P

현종호 지음

한국 현대사를 배경으로 엮은 철학추리소설. 작품 전반에 걸쳐 짙은 민족의식을 깔고

있는 이 작품은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 지식인이 왜 양심을 잃어서는 안되며 대중매체가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이유 등을 소설을 통해 역설하고 있는 작가는 독특한 민족 역사의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신예작가의 독특한 목소리가 질게 배인 작품. (0333-52-3317)

한민족/A5신/330면/6000원

## 스노우 크래쉬 (전2권)

닐 스테픈슨 지음/김장환 옮김

미래의 정보화사회를 소설로 읽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작품. 멀티미디어, 인터넷, 가상현실, 신소재 등등의 미래개념들을 동원해 미래사회의 모습을 형상화시키고 있는 작가는, 한국인 어머니와 흑인 군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히로 프로타고니스트라는 이름의 해커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정보가 돈이자 무기가 되는 미래사회의 문제점을 미리 진단한다. 물리학 지리학 컴퓨터 전문가인 작가의 해박한 지식이 돋보이는 소설. (713-1488)

새와물고기/A5신/366면/6500원

## 보스니아의 연인

한스 그라프 폰 데어 골츠 지음/이혜영 옮김

보스니아 내전을 배경으로 울타리 하나로 이웃하고 있는 기독교도 세르비아계 소년과 회교도 소녀와의 애틋한 사랑을 감성적인 필치로 그려낸 독일 작가의 소설. 소년과 소녀가 교대로 화자가 되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두 연인의 심리를 번갈아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이색적이다. 원제는 <울타리 뒤의 소녀>. 전쟁이라는 가장 비인간적이지만 인간만이 저지르는 최악의 상황에서 꽃핀 사랑이 야기가 눈물겹다. (263-1294)

시아/A5신/182면/5000원

## 은하를 넘어서

로버트 A. 하인라인 지음/안정희 옮김

아이작 아시모프와 함께 SF문학의 거장으로 널리 알려진 작가의 과학소설. 문학적 담보된 과학소설 작가로 명성이 자자한 작가의 이 작품은, 누구든 원하는 사람은 달나라 여행을 할 수 있는 미래를 시대적 배경으로 고교 졸업반인 주인공 김이 지구를 정복하고 인간을 식량으로 삼으려는 우주의 해적들에게 납치되고 명왕성과 태양계를 넘나들며 외계인의 과학문명을 경험하게 되는데... (3672-6057)

한뫼/A5신/324면/6500원

## 트라이앵글은 삼각형이 아니다

곽은 지음

94년 <언어세계> 소설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문단에 등단한 젊은 작가의 장편.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채서영과 가난한 집안의 딸 서인숙은 어릴 적부터 친구 사이. 성장한 서영은 화가가, 인숙은 미술평론가의 길을 걷는다. 그러나 두 친구의 운명은 컴플렉스와 그 반작용으로 얼룩지게 되는데... (3452-4897)

무당/A5신/336면/7000원

## 디지털 도시

박토시 지음

2013년 미래의 통일된 한국, 대학 2년생인 채동규는 발신자를 알 수 없는 CD-ROM 편지 한통을 받게 되는데, 그 편지가 도착한 이후 멀티미디어 화산이 폭발하고 과거속으로 사라진 고비제국과 잊혀진 노아의 방주를 찾아나서는 숨가쁜 여행이 펼쳐진다. 멀티미디어 세계를 가상한 이 소설은 국내 과학소설의 또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신선한 작품으로 보인다. (706-1636)

마이크로그래픽/A5신/256면/6000원

## 술래를 찾는다

김우정 외 지음

<여성동아> 장편소설 공모로 등단한 여성작가 12인의 신작 작품집. 6번째 동인지인 이 작품집은 오늘, 한국 여성작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육십대의 노부인과 노인사와의 만남이 발단이 되어 이야기가 전개되는 박완서씨의 <마른 꽃>과 조양희씨의 <연인의 조건> 박재희씨의 <바람의 말씀> 박옥조씨의 <1945년의 봄> 등 모두 12편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516-5988)

한양출판/A5신/360면/6500원

##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1973년의 핀볼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윤성원 옮김

국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일본의 유명작가의 자전적 장편소설. 초기 4부작 가운데 두 번째 작품에 속하는 <1973년의 핀볼>은 전편격인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와 달리 스토리 중심의 작품. 1970년 8월8일부터 18일간에 걸쳐 벌어진 한 젊은이의 일상을 그린 이 작품은, 대학생인 '나'와 부잣집 아들이

면서 섹스장면이 없고 단 한사람도 죽지 않는 소설을 쓰고 싶어하는 친구 '취'를 축으로 이어진다. (736-9467)

문학사상사/A5신/304면/5500원

### 배반의 얼굴

패트리샤 콘웰 지음/이무열 옮김

이 소설의 작가는 검시관 사무실에서 컴퓨터 분석가로 6년 이상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련의 작품을 발표해 영국 추리작가 협회상 등을 휩쓴 인기작가. 미국 노스캐롤

라이나주 서부의 작은 마을에서 11세된 소녀가 살해된 시체로 발견된다. FBI는 시체의 살점이 예리하게 드러내지고 머리에 총상을 입는 등 리치먼드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인 굴트의 범행과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하는데... (588-0833)

시공사/A5신/408면/6800원

### 나를 있게 한 모든 것들

베티 스미스 지음/김옥수 옮김

1943년 출판돼 밀리언셀러가 됐고 뮤지

컬로도 공연되었던 이 작품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청소년 필독서로 선정될 만큼 오래 읽히고 있는 롱셀러이기도 하다. 빈민가의 대명사격인 브룩클린에서 트럭운전사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 닐리와 함께 살아가는 프렌시가 가진 것이라곤 가난뿐. 이 소설이 흔한 성장소설이면서도 애독되는 이유는 작가가 어린시절의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다. (322-6012)

아름드리/A5신/370면/6800원

### 계간지

### 문학과 사회 (96년 봄)

[특집] 정신분석학의 새로운 문턱 ▲라캉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홍준기) ▲라캉의 언어이론(임진수) ▲정신분석으로 읽기(정재곤)

[연속기획II] 기술시대의 생명윤리(이진우)

[시] 최하림/이기철/김기택/박서원 외

[소설] 차현숙/박성원/박청호

[오늘의 한국문학] 고통의 환기와 구원의 모색(진정석) ▲'집'으로 가는 글쓰기(황도경) ▲달의 어두운 저편(남진우)

[산문] 사랑의 말, 말들의 사랑(고종석) (338-7224)

문학과학지성사/A5신/482면/7000원

### 창작과 비평 (96년 봄)

[특집 I] 《창작과비평》 30년을 말한다. ▲기념호를 내면서(백낙청) ▲창비와 나와 우리 시대(박형규외 14인) ▲창비 30년, 민족문학론의 어제와 오늘(임홍배) ▲한국 사회과학과 창비 30년(김동춘) ▲독자들이 바라본 창비(권성일)

[특집 II] 32인 신작시선(신경림/고은/황

동규/박노해 외)

[서평] 황현산/정홍수/이기백/송승철/이규성

[춘평] 유홍준/서경석/김영현/임길택/정대화 외(718-0541)

창작과비평/A5신/488면/7000원

### 세계의 문학 (96년 봄)

[기획] 들뢰즈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질 들뢰즈, 탈코드화 시대의 사유(이정우) ▲비평기계, 질 들뢰즈(조한경) ▲미시정치, 유목인(신현준/김필호) ▲부정과 긍정-질 들뢰즈의 생애(박철화) ▲나 혼자 방황해야 할 것이다(자크 데리다)

[시] 유종호/김영태/장석주/이문재/이상희 외

[소설] 한정희/성석제/송경아

[논문] ▲스페인 현대소설에 대한 연구(정동섭) ▲독일 통일과 좌파 지식인의 몰락(이기식)(515-2000)

민음사/A5신/358면/7000원

### 문학동네 (96년 봄)

[특집] 프로이트로의 복귀, 그 가능성과 문제점 ▲프로이트와 정신분석비평(도정일) ▲포스트모던 프로이트와 자기반영적 리얼리즘(박찬부) ▲제살 깎아먹는 프로이트(김진석) ▲라캉의 프로이트로의 복귀(정장진)

[시] 유종호/김명인/안도현/김태동

[단편소설] 이동하/배수아/한강/은희경/전경린

[산문] ▲음담패설(淫談稗說)이라면 몰라도(박성룡) ▲노래방 문화와 왕가위 영화(홍석경)

[외국작가 특집] 마르그리트 뒤라스(765-6510)



## 컴퓨터 조판 & 바코드

- 서체견본을 보내드립니다.
- 홍익에서 개발한 S/W 및 보강된 내용
  - 사진 및 색인 자동분류프로그램(한글·한문·영문혼용)
  - 바코드출력 S/W (ISBN·ISSN·등재부) 및 WP 변환S/W
  - 조합될 수 있는 모든 한글·한문 처리, 약물 5000종 추가
  - 한글 33종, 한문 17종(교과서체4종), 러시아어 8종, 일본어 8종 추가
- 홍익의 시설
  - 편집입력기 30대 · 출력기 3대

바코드인쇄원판제작이용안내 : 전화나 FAX를 이용하시어 발행자번호서명식발번호부기호만 알려주십시오.

弘益컴퓨터印刷(株) 마포구 서교동 337-25 징수빌딩 2층  
弘益電子出版研究所 ☎ : 323-6333~5 FAX : 337-0460

## 숨쉬는 향아리를 아십니까?

향아리는 장이나 김치에 깊은 맛을 더해 주는 발효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인들은 향아리가 숨을 쉬다고 말해왔고, 용기장이 역시 장인의 명예를 잃지 않았습니다.

책은 정신을 담은 향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인의 숨결이 담긴 책은 숨쉬는 향아리, 즉 좋은 책입니다.

임씨네 편집공방은 장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임씨네 편집공방 사람들과 만나보십시오.

임씨네 편집공방 서울시 중구 장교동 1번지 장교빌딩 1202-1호 (우)100-760  
TEL : (02)776-5207, 5208 FAX : 776-5209

### 대화 (96년 봄)

[기획] 한국문학의 미래진단, 탈근대 프로젝트 ▲탈근대 프로젝트의 쟁점들(이경훈) ▲한국문학, 새로운 계보학을 위하여(김영민) ▲새로운 문학상상력을 위하여(류보선) ▲민족문학의 오늘과 내일(임규찬) ▲문학 위기론, 그 이후(이광호)

[특집] 5.18 가상현실 ▲TV와 정치의 혼합드라마(손병우) ▲대꽃 저널리즘과 가상현실(원용진) ▲정치마을과 영화마을의 벽이 무너졌다(김수옥) ▲예언의 정치학(송도영) ▲사이버 공간의 정치유혹(윤형근) (744-3962)

대화출판사/B4/188면/7500원

### 오늘 예감 (96년 봄)

[기획특집]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도덕을 바라보는 한가지 방식(정성철) ▲환각의 자유와 꿈꿀 권리에 대한 작은 항변(한정수)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에 관한 짧은 연구(황규원) ▲가족과 패륜에 관한 소고(변정수) ▲사치와 게으름에 대한 논구(신동윤)

[갈래비평 실험] ▲천국보다 낫선(손동수) ▲공무도하가(장재민) ▲한겨레신문(천리안 <현대철학동호회> 한겨레비평모임)

[예감으로 만난 사람] 불온한 합리주의자와의 인터뷰(강준만) (322-7107)

오늘예감/A5변형/240면/6500원

### 의정연구 (창간호)

[특집] 한국 의회정치 회고와 전망 ▲한국 의회정치의 특성(박찬욱) ▲의회정치

위기론(배성동) ▲한국 민주화와 선거제도(조중번) ▲한국의 의회주의와 그 문제점(최대권)

[연구논문] ▲농민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활동(박대식) ▲한국에서의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정영태) ▲한국 유권자의 정당본위 투표(조기숙) ▲사회복지법규 입안과정에서의 정책형성 게임의 비교분석(허만형) (326-0095)

한울/A5변형/224면/9000원

### 학술지

### 민족문화 (제18집)

[특집] 민족문화추진회 창립30주년 기념 ▲한국한문고전 국역사업에 대한 회고와 전망(이우성) ▲한국고전적의 현대화의 성과와 과제(신승운) ▲한국고전적의 세계화의 방향(김종길) ▲《한국문집총간》사업의 평가와 의의(한영우) ▲한국고전적의 전산화의 성과와 과제(김현) 외(394-8802)

민족문화추진회/A5신/318면/비매품

### 반년간지

### 오늘의 시 (96년 상반기)

▲여름 다 저녁 때의 초록 호수 외(고재종) ▲수색은 가지 않는다 외(고형렬) ▲비포 더 레인(권대웅) ▲화석(김기택) ▲오래된 사원 외(김명인) 외

오늘의 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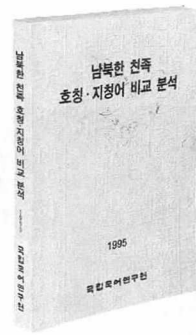
▲구부러진 길 저쪽(오정희) ▲세상 끝의 골목들(이남희) ▲장동리 싸리나무(이문구) ▲이제 나무묘지로 간다(이용준) ▲귀로(이혜경) ▲노래에 관하여(최인석) ▲막내아들(림병순) (365-5051)

현암사/A5신/320면 내외/각 5500원, 8000원

### 자료집

### 우리말 관련 자료집

《95년 신어 연구》 외



국립국어연구원(원장 송민)에서 우리말 관련 자료집 세권을 펴냈다.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생활문화로서 친족·호칭·지칭어를 통합하기 위한 자료집 《남북한 친족·호칭·지칭어 비교분석》은 부

모와 자녀 시부모와 며느리, 처부모와 사위, 남편, 아내, 동기와 배우자, 숙질 사이, 사돈 사이 등의 호칭·지칭어 400개 항목을 정리했다.

《가나다 전화자료집》에는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단어의 용법 등의 의문사항을 상담하는 ‘가나다 전화’의 문의내용과 운용실적을 정리했다. 92년부터 95년까지 연도별로 구분, 총230여건을 어문규범, 표준화법, 단어용법, 국어정책 건의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다.

94년에 이어 두번째로 펴낸 《95신어연구》는 94년 10월 중순부터 95년 10월 중순까지 발견한 신어들을 원어, 인용문과 함께 정리한 자료집이다. ‘가상도서관’ ‘간이휴대전화’ ‘광케이블’ ‘디지털화하다’ 등 정보화시대의 빠른 기술발전에서 나온 용어들이 수록돼 있다. (779-4810)

국립국어연구원/A5신외/각 168면 내외/비매품

### 이색출판

### 사라져간 민족무예의 복원

이덕무·박제가 지음 《무예도보통지》



18세기 말엽 임진왜란, 병자호란의 크나큰 전쟁을 치른 조선시대 정조 때 이덕무·박제가 등 대표적인 실학파들 사이에 조선의 군사제도 전반에 걸친 반성의 논의가 일었다.

결국 실학자들이 만든 책이 《무예도보통지》로서 전통 민족무예와 중국·일본의 무예를 합한 24가지 무예로 정리, 군사훈련용 교범으로 쓰였다.

당시 조선의 ‘무예’에 대한 개념과 전투기술의 사회역사적 배경, 조선의 신무기와 신전투기법들이 간결하고 치밀하게 정리돼 있다.

이번에 번역된 이 책은 단순한 어의 풀이라기보다는 24반무예의 재현으로 사라져버린 민족무예를 누구나 익힐 수 있도록 재구성했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 옮긴이 박동규씨는 장창, 죽장창, 기창, 당과, 낭선, 쌍수도, 예도, 왜검, 제독검, 본국검, 쌍검, 마상쌍검, 월도, 협도 등 24반무예를 직접 재현한 동작사진도 함께 수록했다. (716-2759)

학민사/B5/440면/30,000원

## 디자인은 승부다

표지·분문디자인 / 편집대행 / 광고디자인 / 광고카피 / 일러스트레이션 / 컴퓨터그래피

디자인에는 그 출판물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다름기획의 디자인을 거친 원고, 완전무장한 베스트셀러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38번지 성지빌딩 1208호 / TEL. 707-0572 / FAX. 707-0573

human art

HART



표지디자인 전문

Total DESIGN

서울 강남구 논현동 금호빌딩 3F Tel:(02)512-4844 Fax:(02)543-1624